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故 김상준 추모주일

오늘은 성결교단 제1호 목사이기도 하고, “사중복음”의 신학적 기반을 안비한 김상준 목사님의 추모 기념일입니다(중생, 성결, 신유, 재림).

3. 태신자 작정주일(1주)

오늘은 태신자 작정 주일로 지킵니다.

4. 어린이 예배

매주 주일 오후 1~2시 어린이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5. 청소년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청소년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6. 2024년 10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8.29 ~ 9.29)

10.05(토) 오수빈 어린이 10.13(일) 전진우 어린이 10.16(수) 이재아 어린이
 10.29(화) 한효성 성도 10.27(일) 김막동 권사(-9.25)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10/01	찾날맞이 일삭예배 (성찬예식)
10/06	태신자 작정 주일(1) 한글과 교회와 선교 故 김상준 추모주일
10/09	아하브코업 가을소풍(초막골공원)
10/13	태신자 작정 주일(2)
10/20	태신자 작정 주일(3)
10/22	아하브코업 장기모임(주사랑교회)
10/27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절 성전 장식 시작
11/01	다나엘 21일 기도회 (11/1-21일) 찾날맞이 일삭예배 (성찬예식)
11/03	태신자 초청의 주간(1)
11/05	아하브코업 장기모임(주사랑교회)

주일 사랑 운행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10/06 임명자 집사
- 10/13 임명숙 집사
- 10/20 김혜숙 권사
- 10/27 정애자 권사
- 11/03 박제연 집사
- 11/10 이광근 안집사
- 11/17 임명자 집사



주사랑 7권 40호 | 2024년 10월 6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스무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10월 2024

말씀과 부흥의 달

2024년 표어 :
 성령과의 동행으로
 평안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행 9:31]

- 01일 첫날맞이 일삭예배 (성찬예식)
국군의 날
- 03일 개전절
- 08일 태신자 작정주일 (1주차)
한국 교회와 한글
- 08일 아하브코업 - 가을소풍 (초막골생태공원)
- 09일 한글날
- 13일 태신자 작정주일 (2주차)
- 20일 태신자 작정주일 (3주차)
- 22일 아하브코업 정기모임
경기서지방법원 교역자회 수련회
- 25일 담임목사 가정 이사
- 27일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절 성전장식 시작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故김상준 추모주일) 인도: 집례자

※ 목 도 롬 10:13~15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15장 다 같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서교독 No.77 요한복음 3장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288장 다 같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대표기도 임명자 집사
(청년부 교육부장)

성경봉독 마태복음 4:12~20 (신 4) 임명자 집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505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희락 어린이)

※ 축 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무명(1)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한은총 한성결 한태민 한희락

감사헌금 : 이광근 박제연 한승훈 임명순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선교헌금 : 김혜숙

후원헌금 : 경기서지방회 독지교회 소망세광교회 희망찬교회
오복상방애경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국내선교(오주교후흥스쿨)



해외선교(모로코)



해외선교(타지키스탄)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통일선교 비전기도의

오후 1:0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8:16-29 (구 575)
말씀제목 복의 주체사상, 남의 맘이짐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히 1:1~4, 2:5-12 (신 353)
말씀제목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경배와 찬양** 구역별 찬양
성경봉독 왕상 13:1~10 (구 1036)
대표기도 말 은 이
말씀제목 불의를 대하는 자제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열왕기하 11:1-21 (구 581)
말씀제목 소망의 불씨를 지피는 사람들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6일일 왕하 8:16-29 잠파과작 태합과파
7일일 왕하 9:1-13 장을 세우는 하나님
8일화 왕하 9:14-26 심판의 아픔을 돌아함다
9일수 왕하 9:27-37 악의 최후와 우의 살길
10일목 왕하 10:1-17 명보다 정도의 길을 가자
11일금 왕하 10:18-36 예후의 빛과 그림자
12일토 왕하 11:1-21 학의 불씨를 지피는 사람
13일일 왕하 12:1-21 변질 이유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⑦ 므낫세의 아들로 유다의 15대 왕으로 등극 하였지만, 우상숭배 등의 죄악으로 범죄 했다가 신하에 의해 모살 당한 왕은?(대하 33:21-22)
()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 ⑧ 아몬의 아들로 나이 8세에 왕위에 등극했지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31년 동안 통치한 남 유다의 제 16대왕은? (대하 34:1-3)
()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던 지 팔 년에 그의 조상 ()을 비로소 찾고 제십이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하여 버리매
- ⑨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힐기야에 의해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한 후 요시야의 반응은?(대하 34:19)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
- ⑩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 선지자 홀다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대하 34:24-2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 곳에 쏟으매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 ⑪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 선지자 홀다가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대하 34:27-28)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 ⑫ 요시야가 사무엘 때부터 끊어져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것을 지켰는데 무슨 절기일까요?(대하 34:19)
요시야가 왕위에 있던 지 열여덟째 해에 이 ()을 지켰더라
- ⑬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던 선지자는?(대하 35:25)
()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에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히스기야 왕의 초반 통치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무엇인가요?(대하 31:20-21)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과 ()와 ()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하였더라
- ② 앗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백성을 위로 한 말은?(대하 32:7-8)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 우리를 대신하여 ()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 ③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다가 결국 자멸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하여 산헤립과 싸우신 과정은?(대하 32:20-21)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 ④ 히스기야의 행적 중 적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 될 때를 대비하여, 실로암 못까지 흐르는 관계 수로를 뚫었는데, 그 물길의 시작점은 어디인가요? (대하 32:30)
히스기야가 또 ()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 ⑤ 성군 이었던 히스기야가 잠깐 교만한 시기를 틈타 중병에 걸렸을 때, 회개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이때 나온 왕이 남 유다 14대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극도로 타락하여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왕은 누구인가요?(대하 33:1)
()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리며
- ⑥ 므낫세의 악행으로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나요?(대하 33:9)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 ⑦ 므낫세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회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대하 33:11~13)
여호와께서 ()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를 받으시며 그의 ()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신앙의 향기 - 성결교회 사중복음의 아버지, 故 김상준

김상준은 1881년 평양 용강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1903~1904년 평양시내에서 노방전도대를 통해 은혜 받은 후, 상투를 자르고 집으로 돌아와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조선의 봉사제를 폐하여' 집안에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부친(김상봉)은 매질도 하고 문중회를 열어 설득도 했지만, 듣지 않아 결국 '불효자식'이라 인정하고 하인에게 명석말이를 시켜 들에 버리게 했는데, 그 하인은 상준을 문중 사람들 몰래 풀어놓아 피신케 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김상준은 부모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1902년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인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박스톤 박사의 제자이면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나까다 목사였습니다. 나까다 목사는 미국에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일본에 전하려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김상준은 나까다 목사의 양육을 받아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나까다를 열심히 따라 다니면서 실천신학적인 분야에서 열심히 실습하며 배웠습니다.

나까다는 김상준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나까다는 동경성서학원을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했는데, 1903년 봄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동경성서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나까다의 양육을 만나면서, 사중복음(四重福音)과 성령충만, 실천적인 복음전도, 홀로 서기를 통한 자립정신, 성결한 생활 등의 깨달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또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안 박스톤, 사사오, 카우만, 길보른, 레티 카우만, 나까다 등 여러 교수들로부터 말씀중심적인 삶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1907년 3월에 김상준은 정빈과 함께 고향 평양으로 돌아왔다. 1907년 5월에 서울의 종로에 집을 얻어 본격적인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 5월 30일, 사중복음의 설교를 선포하기 시작했으며, 1908년 겨울 서울 종로 염곡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경성의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를 하던 중,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고,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찬송을 부르고 손뼉을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장로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일부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성결 은혜를 체험하여 후일에 목사가 되곤 하였던 것입니다. 1914년 4월 22일에 김상준은 한국 성결교회의 제1호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그는 무교동 시대를 마감하고 아현동으로 자리를 옮겨 교회와 신학교를 돌아봅니다. 신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갈등도 많았지만, 사랑으로 갈등을 극복했으며, 1915년에 아현교회를 사임하고 고향 인근의 개성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동안 그는 학생들의 교재를 위해 집필하던 "묵시록 강해집"을 출간합니다.

김상준은 김봉준과 함께 1919년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였고, 평양 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1920년 3월 1일에 길보른 선교사의 도움으로 형무소를 출소합니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그는 <사중복음의 신학적 정리>를 위해 집필에 몰두합니다. 1921년 6월에 성결교회 최초의 체계적인 교리서 <사중교리>가 출간됩니다.

이명직 목사의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역사」에 의하면 '김상준은 이 땅에 최초로 성결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로 소개합니다.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박명수 교수는 김상준 목사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한국성결교회사에 있어 김상준 목사는 성결교 초창기에 한국인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성결교 창립에 위대한 공을 세운 선구자"로 말하고, "한국 성결교회의 최초의 오순절의 문을 연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1107	제사장 엘리	삼상 1~4장
찬송가 찬 322장.....	다 같이	1069	사사 삼손	삿 13~16장
대송기도	말은 이	1067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삼상 1~8장
성경봉독 왕상 13: 1~ 10	말은 이	1043	사울의 통치 (~BC 1011)	삼상 10~31장
말씀인도 불의를 대하는 자세	말은 이	1011	다윗의 통치 (~BC 971)	삼하2~왕상2
합심기도	다 같이	971	솔로몬의 통치(~BC 931)	왕상 1~11장
헌금기도 찬 460장.....	말은 이	931	복조 1대 왕 예로보암(BC 913)	왕상 11장
주기도문	다 같이	931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상 12장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 예로보암 왕이 단과 벧엘에 만들어둔 금송아지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는 문제를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심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단과 벧엘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만든 탐심과 정욕의 산물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여기고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일반인 가운데서 뽑아 세우고, 있지도 않은 절기도 날짜를 변경하면서까지 만들면서 이스라엘 종교를 개편합니다. 이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행동으로, 예로보암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로보암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성찰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1~5).

예로보암 왕은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벧엘에 두고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외치며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한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 벧엘로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법적으로 제사하고 있던 예로보암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패역한 길로 달려가는 예로보암 왕을 책망하십니다. 급기야 후에 있을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날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사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단’을 의인화 하여,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고, 차후의 통치자의 이름(‘요시아’)까지 거론함으로써 이 심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왕하 23:15~16).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어도, 불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방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겸허하게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따뜻하게 용납해야 합니다(6~7).

선지자의 책망에 감정이 상한 예로보암은 제단을 향하여 손을 뻗치며 선지자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곧 명령하던 예로보암의 손이 굳어져버립니다. 말씀대로 징조가 임하는 것을 보며 자신을 책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로보암 왕은 “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구’합니다. 선지자는 예로보암의 청을 듣고 기도합니다. 회개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낮아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예로보암 왕이 자기의 손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손을 고쳐주신 것에 감사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손이 아플 때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회복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로보암 왕은 선지자의 뒤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불의를 용납해서도 안 되겠지만, 연민의 마음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셋째, 유혹을 꼭 부러지게 뿌리치는 청렴함을 갖아야 합니다 (8~10).

힘의 상징이었던 예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린 것처럼, 예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고(왕하 11:38),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잃은 ‘메마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자신과 함께 하기를 간청하며, 선지자를 잡으려고 큰 재물을 약속합니다. 또 잠자리와 음식과 예물로 유혹합니다. 힘으로는 안 되지 가식적인 환대로 선지자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을 뿐, 그의 마른 손이 회복된 것처럼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단호하게 예로보암 왕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식탁을 거절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깨진 언약의 회복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사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물 한 그릇조차 탐하지 않는 청렴함은, 말의 힘과 영향력을 배가 되게 합니다. 말씀의 삶은 말의 힘이 생명입니다.

■ 결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계와 가치관이 모호한 시대가 되버려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행복과 쾌락, 하나님과 우상, 은혜와 황금, 심지어 사람과 동물, 남자와 여자의 성(性) 개념의 경계도 허물어트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예로보암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긴장은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각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의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생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세상에 공포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날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을 바꿔가야 합니다.